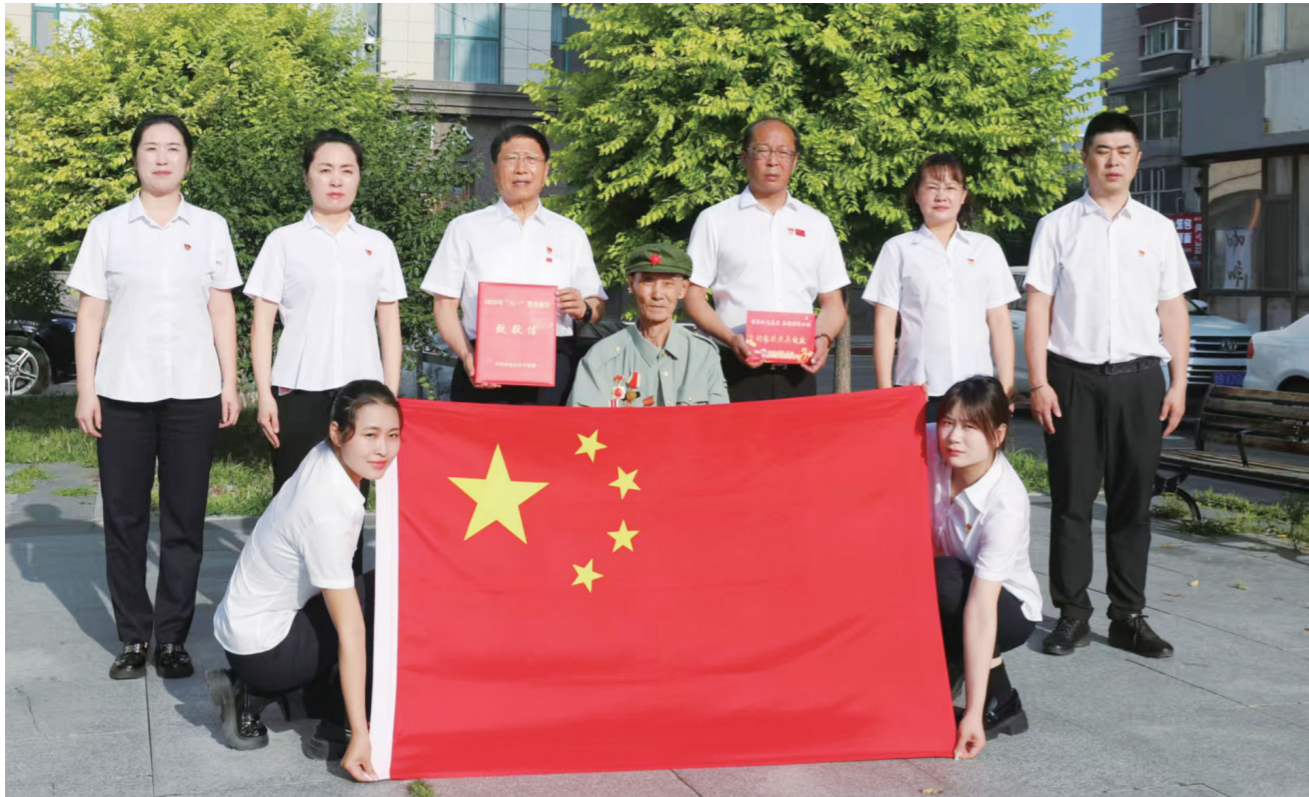


[홍색정신 전승]

백산방대그룹 35년간 이어온 홍색정신 전승의 옹군길

— 35년간 3만키로미터 달려 260명 참전 로병사 위문



▲ 녑봉련과 백산방대그룹 지도부 성원 및 청년자원봉사자들이 로병사 장동선을 위문하였다.

가렬처절한 전쟁년대, 로세대 혁명군인들은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함께 외부의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중화민족의 빛나는 한페지를 써내려갔다. 번영창성하는 평화시대, 사회각계는 숭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로병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냄으로써 전사회에 영웅을 존중하고 영웅을 사랑하며 영웅을 따라배우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7월 19일, 장춘시 조양구 중경로 근처에 거주하는 96세 고령의 참전 로병사 장동선(张栋选)은 백산방대그룹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녑봉련과 그룹 지도부 성원 및 청년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위문을 받았다.

장동선로인은 "백산방대그룹이 우리 참전 로병사들을 일일이 찾아 위문하는 이런 선행을 한해, 두해도 아닌 35년간 연속 꾸준히 견지해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높이 치하했다.

1990년에 설립되어서부터 지금까지 35년간 백산방대그룹은 다양한 로병사 위문 애심행사를 적극 전개하여 그들에게 쌀, 밀가루, 기름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활 속 실제 곤란을 해결해줌으로써 로병사들이 따스함과 존중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선행은 력사에 대한 기억일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기여정신에 대한 전승이기도 하다. 군대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이 군대를 옹호하는 훌륭한 전통은 이렇게 사소한 배려 속에서 이어져왔다.

■ 항전 승리 80주년, 80명 로병사에게 사랑의 손길을

방대그룹이 위치해있는 백산시는 로혁명근거지로서 동북항일련군의 주전장이었고 양정우 장군이 전투했던 곳일뿐더러 그의 순국지이기도 하다. 또한 백산시는 해방전쟁의 중요한 전장터였으나 유명한 사보림강전역은

로침전역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현재 장백산맥의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동북항일련군의 전설이 스며져 있다.

"영웅들의 사심없는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날 조국의 번영창성과 인민의 행복하고 강녕스러운 생활, 기업의 장족적인 발전을 운운할 수 있었는가?"

으로 선정되었다.

백산방대그룹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몇달 동안 종업원들을 조직해 성내 각지 80명 로병사를 찾아뵈고 그들의 인생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격동되어 공공매달을 꺼내보이는 로병사의 눈빛에는 긍지와 영광이 가득차있었고 군례를 올리는 로병사의



▲ 백산방대그룹 종업원들이 항전 로병사 풍국경(冯国卿)로인의 100세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있다.

백산방대그룹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녑봉련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은 홍색문화에 물들어 군대와 군인에 대해 특별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1990년 그는 훈강당주참(백산방대그룹의 전신) 총경리를 맡은 첫해부터 응군 행사를 시작하여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과 담담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도 헌신은 멈추지 않는다. 35년간 백산방대그룹은 연인수로 1만여명 종업원을 조직하여 1,000여차 응군 행사를 전개하고 300여개 군·경단위를 위문했으며 루계로 260명 참전 로병사들을 위문했는데 응군길은 3만키로미터가 넘는다. 그룹은 '전국애국웅군모범단위' 칭호를 수여 받았고 녑봉련은 '전국애국웅군모범' 눈빛에는 군인 특유의 의연함과 완강함이 보였으며 <자원군 위문 소창>을 부르는 로병사의 눈빛에는 군인의 영웅무쌍한 정신과 부드러운 정이 담겨져있었다.

많은 로병사들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청빈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풍족했다. 그들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흔히 듣는 말은 바로 '당에 감사하고 정부에 감사하고 사회의 사랑에 감사하다!'였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동적이었다." 녑봉련은 감격에 겨워 말했다.

■ 로병사들에 대한 사랑은 시간과의 경주

석신화: 1930년생, 해방전쟁과 항미원조전쟁에 참가. 단기모: 1932년생, 항미원조전쟁에 참가...

백산방대그룹의 <로병사 위문 등록표>에는 로병사들의 년세, 주소, 연락인 등 건강 상황, 전역 참가 상황까지 모두 똑똑히 기록되어있다. 매인에 대한 소개는 단 몇줄씩이지만 영웅무쌍하게 보자위국에 나선 그들의 지난 세월에 대한 압축이었다.

로병사들은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재산이며 새시대의 개척자, 목격자, 건설자이다. 백산방대그룹에 등록된 백산시와 장춘시의 참전 로병사는 무려 100여명에 달한다. 현재 로병사들 중에서 최고령은 무려 106세이고 최소령도 90세가 넘는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로병사들이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백산시 훈강구의 류장준은 1926년에 룡녕에서 태어나 항일전쟁, 해방전쟁에 참가한 항전 로병사이다. 2013년 류장준의 사적을 알게 된 후부터 백산방대그룹은 해마다 2번씩 연속 7년간 로병사의 집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녑봉련도 로인과 두터운 우정을 맺었다.

2019년 겨울의 어느 날, 장춘에 출장중인 녑봉련은 "로인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아 이미 입원했는데 녑봉련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류장준 가족의 전화를 받았다. 녑봉련은 즉시 그룹 지도부 성원들과 함께 백산시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류장준로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로병사는 녑봉련의 손을 잡고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라며 간신히 띄엄띄엄 말을 이어갔다. 다음날 로인은 세상을 떠났다.

<로병사 위문 등록표>에 등록된 로병사들이 련이어 세상을 하직하는 시점에 로병사들에게 애심을 전달하는 일은 말 그대로 시간과의 경주였다. 백산방대그룹은 기회를 바짝 틀어쥐고 로병사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해드리고 있다. 뜨거운 해별이 내리쬐는 삼복철이든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이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로병사들에게 따스함을 전달하러 달려간다.

천지의 영웅적 기개는 천추만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종업원들이 홍색력사를 배우고 홍색문화를 전승하며 분진력량을 섭취해야만 기업的高품질 발전에 확고한 신심과 강대한 힘을 주입하고 기업의 승승장구와 영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녑봉련은 이같이 말한다. 다년간 백산방대그룹은 '전국순진기충당조직', '전국문명단위' 등 여러가지 영예를 따냈다.

■ 수만리를 달려 민족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다

옹군길은 백산방대그룹 설립 첫해부터 시작되었다.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도우면 자신이 즐거워진다." 이는 개국 소창 감조창(甘祖昌)의 부인이며 전국도덕모범인 공전진(龚全珍)이 녑봉련에게 보낸 책에 써여있는 글이다. 공전진 생전에 녑봉련은 여러차례 강사에 찾아가 로혁명근거지에 뿌리내리고 사심없이 헌신한 감조창의 이야기를 공전진으로부터 자주 전해들으면서 큰 영향을 받았으나 감조창의 혁명정신은 시시각각 녑봉련의 인생에 힘을 북돋우어 주고 있다.

35년의 발전 로정에서 옹군은 이미 백산방대그룹의 습관이자 사명이자 책임이자 문화로 되었으나 광범한 종업원들에게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을 수습해주고 분분분발하는 힘을 전달해주었다.

"애국웅군 면에서 백산방대그룹은 백산의 기발이자 본보기로서 일종의 정신을 전하고 있다. '백산방대'와 같은 우수한 기업과 녑봉련과 같은 애심기업가를 덕분에 백산시는 5회 연속 '전국쌍용모범도시'로 명명되었으며 군대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이 군대를 옹호하며 불고기와 물처럼 친한 군대와 인민의 전통을 로혁명근거지에서 풍조를 이루어 끊임없이 전승될 수 있다." 백산시퇴역군인사무국 국장 개리리(盖莉莉)는 이같이 말했다.

세월이 흘러도 정신은 영원하다. "로병사들이 생명으로 쓴 영웅서사시는 더욱 씩씩하게 앞으로 전진하도록 영원히 후대들을 고무격려할 것이다. 우리는 로병사 위문 행사를 계속 견지하여 력사와 인민이 영웅과 공신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녑봉련의 눈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 /유경봉기자

매하구시 항전정신 기리는 음악의 향연 펼쳐

— 매하구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 음악회는 전체 출연진과 관중들이 함께 <조국을 노래하네>를 열창하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8월 22일 오후 2시, 항일전쟁에서 영웅하게 희생된 선렬들을 기리고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항전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음악회'가 매하구시 박아(博雅)실업학교에서 개최됐다. '력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노래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음악회는 매하구시당사업위원회(매하구시당위) 선전부, 매하구시당사업위원회회전전부, 매하구시(매하구시)문화라지오텐레비죤방송및관광국, 매하구시교육국에서 주최하고 매하구시민족문화관에서 주관했으며 통화시조선족군중예술관 관악합창단, 매하구시구박악실협학교, 길림대학제1병원 매하병원에서 협조했다.

이 참석한 가운데 함미원조선전지원모범이며 전국로력모범인 조선족 김영숙로인이 특별 초청을 받고 참석했다.

음악회는 국가 1급 연주가 김성호선생의 지휘하에 진행되었으며 매하구시애악단과 통화시조선족군중예술관 관악단의 <의용군행진곡> 합주로 막을 열었다. 이어 기세당당한 교향곡 <황하를 보위하자> 합주가 온 극장에 울려퍼졌다. 다음으로 당과 인민 그리고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노래하고 영웅들을 구가하는 내용을 담은 녑성독창, 녑성독창, 합창, 음악시낭송, 관악합주 등 종목들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전체 출연진과 관중들이 함께 <조국을 노래하네>를 열창하여 조국을 사랑하는 중화 아들 딸들의 공동 녑원을 표하였다. /문광호특약기자

장백현, '중화민족 한가족' 특별 문예공연 개최



▲ 장백현 '중화민족 한가족' 특별 문예공연 한 장면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 2025년도 '주말대무대' 및 '중화민족 한가족, 장백의 아들딸 한마음' 특별 문예공연이 8월 23일 저녁 중조 변경 압록강변에 위치한 장백광장에서 있었다.

장백조선족자치현당위 통전부에서 주최하고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특별 문예공연에서는 민족단결보사업을 우선으로 대합창, 독창, 소합창, 무용, 통소합주, 관악합주, 가야금연주, 모델공연 등 풍부하고 다채로운 14가지 문예종목들을 선보였다.

특별 문예공연은 대합창 <우리는 큰 길로 걸어간다>, <유격대행진곡>으로 서막을 열면서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어 조선족무용 <진달래꽃 피어나는 고향>, 녑성독창 <번신한 농노들 노래 부르네>, 관악합주 <아름다운 고향 나의 장백>, 아동제 무용 <즐거움 출항> 등 종목들 연출하여 위대한 당과 위대한 조국을 노래하고 당의 민족정책을 열정적으로 구가했다.

리랑 량랑,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등 종목은 최근년간 장백조선족자치현의 민족단결보사업을 노래하고 고향의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했다. 멋진 공연은 시중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2025년 백산시에서 진행된 '제7회 길림성중로년모델경기'에서 2등상을 수상한 조선족 모델 공연 <수려한 장백>과 올해 길림시에서 진행된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전목회 '의수당강' 조선족중로년선악대회에서 무용부분 1등상을 받은 조선족무용 <진달래꽃 피어나는 고향> 등 멋진 문예종목들을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족악기인 통소로 <일터의 휴식>을 합주하고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연주하여 생활을 열애하고 만년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 로인들의 량호한 정신풍모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었다.

이번 문예공연은 무용 <조국을 노래하네>로 막을 내렸다. 글/사진 최창남 신영호



▲ 백산방대그룹 종업원들이 중국공산당제1차전국대표대회기념관을 참관하였다.